



대건총동창회보

언제나 어디서나
양심과 정의와
사랑에 살자

제43호 2017년 9월 29일 발행인 정현태 발행처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www.daegungo.net 편집인 이종오(31회)·최기원(42회) TEL. 053)638-6860

48대 총동창회장 정현태 동문 취임

“누구나 어울리는 동창회, 단합된 마음으로 학교 발전 이루자”



5월 2일 모교를 방문한 정현태 회장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4월 27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대건중고 동문들이 찾아 48대 정현태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47대 신기욱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신기욱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대건중고의 발전을 기원하며 “재임 기간 중 만든 장학재단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후배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건고가 대구 최고의 고등학교가 된 만큼 동창회가 모두 단합된 마음으로 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태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대건중고 총동창회를 항상 열려 있고 소통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동문들에게 ‘사랑방’ 같은 총동창회를 만들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 회장은 “유소작위라는 말이 있다.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는 의미다. 기존의 동창회 회칙과 조직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해 대건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어울리는 총동창회를 만들겠다”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동창회보를 발간하며 / 제48대 총동창회장 정현태

대건 가족의 동정과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43호 동창회보의 발간을 동문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그리고 동창회보 발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편집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창회보에는 지난 1년 간 대건 가족이 걸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동기와 선후배의 반가운 모습을 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랑



위로 받고, 반가운 모습 만나는 사랑방

방 같은 공간입니다. 동창회가 마련한 다양한 행사들의 준비과정에서부터 화보, 지역별 동문 근황, 기수별 동정, 모교 소식까지 이번 동창회보도 알찬 지면으로 동문들을 찾아갑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로 심신이 지쳐있을 동문들이 동창회보를 펼쳐보며 잠시나마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짓는다면, 10그램도 채 되지 않는 회보는 제 역할을 다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건 동문들이 동창회보를 통해 위로를 받고 서로 안부를 묻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보 활자 하나와 사진 한 컷, 한 줄의 제목에도 혼을 담아 제작에 임했습니다.

편안한 휴식 같은 동창회보, 동문들에게 위로가 되는 동창회보임을 자신합니다. 동문들께서도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업무는 밀어놓으시고 동창회보를 펼쳐 반가운 동기와 선후배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건 가족의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문들에게 이번 43호 동창회보가 또 하나의 자랑이 되길 바라며, 모든 대건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제39회 대건가족 체육대회

- 장소 : 대건고 운동장 (대구 달서구 월곡로 94길 46)
- 문의 : 053)638-6860

“10월 15일 모교에서 만남시다”

☆ 친구야~ 반갑데이~ 선생님~ 보고싶었어요~

제41회 졸업 25주년 홈커밍데이

일시 2017년 11월 17, 18일(양일간)

장소 모교 안드레아관 1층

연락처 회장 진명인 010-2543-4437 / 총무 김현수 010-8563-8121



41회 동문들이 졸업 25주년을 맞아 동기간 우애를 다지고 학창시절 은사님도 찾아뵙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리운 모교에서 동문들이 특강 형식으로 재학생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합니다.

41회 동문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기회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임원진을 비롯하여 모두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열린 동창회, 소통하는 동창회, 친근한 동창회



제48대 총동창회장을 맡으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건 선·후배 동문 여러분! 총동창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게 맡겨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대선배이신 신기욱 회장님께서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 놓으신 훌륭한 눈부신 업적과 노고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지만, 저를 믿고 맡겨주신 동문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건학교는 사랑, 평화, 정의를 존중하며 이웃과 나라,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창의적인 대건인 육성을 건학이념으로 대한민국 최고 명문 사학으로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총동창회 회칙 제1장 2조에 명시된 “동문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건학교 동문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어울리는 ‘열린 동창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문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건인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통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하

“유소작위(有所作爲), 변화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면 함께 이뤄야”

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동창회 회칙과 조직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편해 ‘친근한 동창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중국의 외교정책 중에 ‘유소작위(有所作爲)’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개혁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뤄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동창회도 신기욱 회장님을 비롯해 전임 회장단에서 이루어놓으신 업적을 계승·발전시키면서 변화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과감한 개편작업이 필요하다면 함께 이뤄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열린 동창회’, 더욱 ‘소통하는 동창회’, 더욱 ‘친근한 동창회’의 모습으로 동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대건학교 총동창회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동문 여러분께도 총동창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건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 현 태(중17회)

現 경일대학교 제5대 총장
경일대학교 부총장·기획처장·학생처장

在제주 동문회 “창립 인사드립니다”

재제주 대건고동문회장 이 광 만

명문 대건에 강한 자부심 교훈 새기며 오늘도 최선

모교를 떠나 대건의 건아들이 각계각지에서 다양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에도 우리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제주 대건고 동문들로 구성된 동문회의 창립을 계기로 총동창회보를 통해 소개할 수 있게 땀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대건중·고 총동창회 명부(2017)에 기초하여 연락해 본 결과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이 27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제주동문회는 이들을 중심으로 2017년 9월 13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임원진에는 성병목(18기, 전 보불젠 대표) 동문을 고문으로, 이광만(23기, 제주대 교수) 동문을 회장으로, 윤승보(35기, 한국가스공

사 부장) 동문을 총무로, 구길우(50기, 건강100세의원 원장) 동문을 부총무로 각각 추대했습니다. 총동창회 강형해(22기) 사무처장은 직접 제주도로 방문, 격려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멀리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7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최고의 인재를 배출,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명실상부한 명문고로 발돋움하였다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재제주 대건 동문들은 모교의 영광과 더불어 ‘언제나 어디서나 양심과 정의와 사랑에 살자’라는 대건인의 영원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제주의 동문들과 함께 상부상조하며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발전을 항상 기원합니다.



축 대건 동창회보 발간

태령건설

건축, 토목, 조경
산업설비 전문시공업체

대표 사공득(28회) M.010-3822-4471
053)422-3332, 812-8002






동문회는 심리적 교정(校庭)… 반갑고, 즐겁고, 유익하게



재경 동문회를 맡으며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 가끔 활기찬 기운을 만들고 싶을 때는 유튜브(u-tube)를 검색하여 행진곡을 듣는다. '경기병 서곡', '라데츠키 행진곡' 그리고 영화 '과이강의 다리', '사상 최대의 작전'에 나오는 주제곡 등이다.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에 기분이 업(up)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의 한 순간 한 장면으로 들어간다.

아침 등교시간에 남산동 학교 옆 골목길로 접어들면 이러한 행진곡들이 담장 너머로 들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무슨 행진곡인지 곡명도 모른 채 들었다. 그러나 교문을 들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로 가는 동안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 행진곡들은 매일 아침 듣는 일상이었음에도 묘하게 기운을 돋우면서 약간의 비장함(?)까지 느끼게 했던 것 같다.

아마도 그때의 추억이 잠재되어 있으면서 나로 하여금 많은 음악 중에 행진곡을 아침에 듣게끔 만드는 동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요즘 나는 모교인 대건고등학교가 만들어 준 동문 관계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새삼 느낀다. 선후배 및 동기들과 어울려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가볍게 술도 마시면서 일상의 얘기를 나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곳에서는 없는 편안함과 소소한 즐거움을 맛본다. 사실 약 33년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나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고 새롭게 맺어지는 사회관계들 속에 부대끼다 보니 학창시절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성의있게 챙길 정서적 여유가 부족했다.



최원영(24회)

現 차 의과대학교 교수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보건복지부 차관

“동문의 노력이 모여 이룬 대건의 명예 재경 동문회도 탄탄한 저력 형성 모든 동문 함께하는 큰 동문회 소망”

이제 그 치열했던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만나는 고등학교 동문들은 서로가 원숙한 연륜의 깊이로 보듬어주고 무엇보다 모교가 같다는 그 사실 하나로 아무런 조건 없이 금새 따뜻한 관계가 된다.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일인가!

모교 대건고등학교가 역사를 더해 가면서 자랑스러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 동문들의 기세(氣勢)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대단하다.

모든 동문들이 교가의 노랫말과 같이 '검님의 무릎 아래 경건히 꿇어 자자히 탁마하는 씩씩한 기상'으로 실력을 쌓았고, 교훈의 가르침인 '양심과 정의와 사랑에 살자'는 다짐을 새기면서 살고 있고, 교가의 암시를

받아 '나라를 굳게 세울 기둥'으로 자기의 분야에서 각자 제 몫을 하고 있다.

학교의 개교 역사도 7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이제 100주년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족적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동문들 각자가 차곡차곡 쌓아 온 노력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개인적으로 빛을 발할 뿐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모교 대건고등학교의 명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재경 동문회 회장을 맡았다. 동문회는 동문들의 정서적 울타리가 되고 선후배 간의 가교가 되며 영원한 심리적 교정(校庭)이 되어야 할 곳이다.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경기 지역으로 와서 대학공부 또는 직장생활의 터를 잡았던 많은 동문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재경 동문회의 탄탄한 저력(低力)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간 동문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동문들도 함께 하는 큰 동문회가 되길 소망한다. 지금까지 재경 동문회를 잘 가꾸어 온 선후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반갑고 즐겁고 유익한 동문회'가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한다.

생각해보니 모교가 캠퍼스를 옮긴 뒤로 학교를 가보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지금 후배들이 공부하고 있는 새로운 캠퍼스는 어떤 모습일까? 옛날 남산동 건물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다가오는 10월 15일 모교에서 열리는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반가운 동문들도 만나고, 창신(創新)하고 있는 모교의 캠퍼스도 한번 둘러보며 잠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봐야겠다.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에 주력



대건고 19대 교장 취임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건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건고등학교 제19대 교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대희입니다.

“은총의 70년, 도약의 100년”을 선언한 명문 대건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맹자는 천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일을 군자의 마지막 즐거움으로 꼽았습니다. 저 또한 가능성과 실력을 겸비한 학생들을 가톨릭적 인성을 지닌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로 길러내는 일을, 제 인생의 마지막 즐거움으로 삼겠다 다짐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우분투’를 강조해 왔습니다.

아프리카 반투어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이 말은, “I am because you are” 즉,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의 진리도 ‘우분투’의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교육이 변화의 큰 물살 속에서 요동을 쳐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감할 줄 아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교육의 가치와 목적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대건은 앞으로도 ‘잘+가르치는 학교’를 슬로건으로, “양심을 키우고, 정의를 배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이대희 교장

대건고 연구·교무부장
효성여고 교무부장
대구진학지도협의회 총무
고교 교육력 제고 전국 컨설턴트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위원

“대건인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든든한 거인의 어깨가 될 것”

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행복한 대건교육공동체를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학생의 잠재력과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참 좋은 교사’, ‘소통, 협력, 나눔의 미래 인재로 자라는 참 좋은 학생’,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참 좋은 학부모’가 모두 함께 행복한 학교,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중점 과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인문학적 상상력과 자연과학적 탐구력 향상을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적극 실천한다.

▷ 진로 탐색과 심화 탐구 학습을 위해 체계적인 글 읽기와 글쓰기를 지도한다.

▷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인성 함양을 위해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학생 중심 수업을 실시한다.

▷ 행복한 미래 문화 교양인 육성을 위해 활동과 체험 중심의 예술·체육 교육을 실시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건 교육 가족 여러분!

대건이 키워내고자 하는 인재상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창의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의사소통 능력과 심미적 교양을 갖춘 사람’,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과정 중심의 평가, 지속적인 상담 활동을 통해, 학생 각자가 자신의 소질과 역량을 가치있게 생각하여,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대건인을 길러내겠습니다.

“교육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대건인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든든한 거인의 어깨가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인 명문 대건 자율형 사립고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일대학교

365 학생행복

경일대학교는 학생과 함께
'학생행복 365' 시대를 열어갑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 교육부 주관, 5년간 200억 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전국 '최우수' | 7년 연속 선정, 연 35억 원

대학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 | 2017년 15억 원 대구·경북 유일 선정

2017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 기계·자동차·건축 분야, 대구·경북·강원권 3개 분야 유일 선정





제38회 대전가족체육대회
(2016년 10월 9일)



2016년

- 10월**
- 6일 고 백준호(중33회, 고35회)동문 흉상공사 작업
 - 9일 제38회 대전가족체육대회(주관기 중32회, 고34회) / 종합우승 41회
산악 첫 의사자 백준호 동문 흉상 제막식
 - 21일 고등학교 동문 초청 특강(서중호 동문 등)

- 11월**
- 1일 함인석(중15회) 동문 회장대행 취임
 - 4일 수능 입시생 격려, 빵·음료 제공
 - 11일 신기욱 회장 집행부에 고별 만찬
 - 14일 신기욱 회장 임기 만료로 인한 회계 결산 감사
 - 18일 40회 동기회 졸업 25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 40회 동문 모교 강의
 - 19일 40회 동기회 졸업 25주년 기념 사은의 밤(모교 1층 양정관)

- 12월**
- 9일 동문 가족의 밤 행사



산악 첫 의사자 백준호 동문 흉상

2017년

1월

- 2일 정현태(중17회) 동문 총동창회장대행 취임
- 20일 제6호 동문 명부 주소록 발간
- 중·고교생 1박2일 아진산업 견학

2월

- 2일 장학금 수여자 오찬
- 3일 고등학교 졸업식, 장학금 및 금배지·상패 수여
- 8일 중학교 졸업식, 금배지·상패 수여
- 중·고 명예퇴직교사 상패 및 격려금 지급
- 23일 고등학교 입학식, 장학금 지급

3월

- 2일 중학교 입학식, 장학금 지급
- 23일 동창회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서중호 동문 지원)

4월

- 14일 2016년도분 총동창회 결산 감사
- 23일 24회 동기회 체육대회(월성동 모교 대건관)
- 24일 2017년 상반기 정기 이사회 (모교 3층 시청각실)
- 27일 제65차 정기총회

제65차 정기총회 (4월 27일)



제65차 정기총회가 4월 27일 호텔 인터볼고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150여 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신기욱 전 총동창회장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장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문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훌륭하신 분을 후임 총동창회장님으로 모시기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허락해 주신 정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이임사를 전했다.

제48대 회장에 취임한 정현태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게 맡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히 대 선배이신 신기욱 회장님께서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이루어 놓으신 훌륭하고 눈부신 업적과 노고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지만 믿고 맡겨 주신 동문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신임 최 회장은 이날 모교의 모범교사에 대한 표창과 임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상반기 정기 이사회 (4월 24일)



5월

- 1일 정현태 총동창회장, 중·고교 방문 전 교직원에 기념품 전달
- 15일 35회 동기회 스승의 날 기념 감사 음식 전달
- 27일 대구·재경 합동 산행(단양 온달산성)
- 29일 총동창회 고문회의(영남별장)
- 31일 정현태 총동창회장, 각 기수별 회장 간담회



5월 27일 대구·재경 합동 산행

재경동문회 정기총회 (6월 21일)



6월

- 7일 정현태 총동창회장, 집행부 간담회
- 21일 재경동문회 정기총회
- 23일 총동창회장, 신임 사무처장 및 집행부 간담회
- 26일 고등학교 행정실장 정년 퇴임식, 감사패·부상 전달

40회 야유회 (7월 2일)



7월

- 2일 40회 야유회
- 5일 임시 이사회 개최, 신기옥 전 총동창회장 명예회장으로 추대
경일대학교 도움으로 2005년 제작된 총동창회 홈페이지 개편
- 14일 재단법인 대건총동창회 장학회 이사회
- 25일 가족체육대회 주관기수 35회 준비위·총동창회 집행부 회의

장학회 이사회 개최, 신기옥 이사장 선출(7월 14일)



신기옥 이사장

7월 14일 신기옥 이사장 주재로 재단법인 대건총동창회 장학회 이사회가 봉덕동 모모하나에서 개최되어 현 이사를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장 선출 및 상임이사 선임, 감사 연임과 그동안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사 명단>

- ▶ 이사장 : 신기옥(6회)
- ▶ 이 사 : 박도규(15회), 서은수(17회), 함인석(중15회), 서중호(27회), 이준희(28회), 정현대(중17회), 박인규(중19회), 김경호(19회), 최원영(24회)
- ▶ 감 사 : 이수형(28회), 배재열(33회)

임시 이사회 (7월 5일)



고등학교 이두영 교장 퇴임감사미사 (8월 24일)



37년 6개월 동안 교직에 근무하면서 교육환경 발전과 제자들의 인성 교육 함양에 평생을 헌신한 고등학교 이두영 교장 퇴임 감사미사가 8월 24일 모교 별관 요한보스코 경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미사에는 총동창회를 대표해 강형해 사무처장이 참석,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두영 교장은 퇴임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미리 걱정하지 않고 주어지는데로 살아 갈 것"이라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미사 주례는 법인 사무국장 신부이신 정해철 신부가 맡아 강론에서 "밤하늘의 둥근달을 보면 보름달 같이 환한 우리 교장선생님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수고로움에 대해 감사와 함께 아쉬움을 전했다.

8월

- 18일 재단법인 대건총동창회 장학회 등기완료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연임 및 증원으로 인한 정관 개정)
- 24일 대건고 이두영 교장 퇴임감사미사
- 25일 체육대회 주관기수 35회 동교회 준비위, 동창회 사무처 방문

하반기 정기 이사회 (9월 8일)



재제주 동문회 창립식 (9월 13일)



9월

- 1일 총동창회장, 체육대회 주관기수 35회 동교회 임원 격려 만찬
모교 이대희 교장 취임
- 8일 하반기 정기 이사회
- 13일 재제주 동문회 창립식
회장 이광만(23회), 총무 윤승보(35회)
- 15일 개교 71주년 기념식, 중·고교 전 교직원 및 전교생 빵·음료 제공 / 장기근속교사 포상

대전중고 미국문화탐방단 15명, 美 한국법인공장·역사시설·대학 견학

서중호 동문, 4년째 지원 “견문 넓힐 기회 주고 싶다”

대전중고 미국문화탐방단(중학교 2명, 고교 10명, 교사 3명·이하 탐방단) 단원들은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동남부 한국 법인 공장역사시설, 대학 등을 견학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대전중고 탐방단의 미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대전중고 총동창회 장학회가 주최하고 대전고 27회 졸업생인 서중호 아진산업(주) 대표의 후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서 대표는 후배들이 미국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새롭게 느끼고 배우는 기회를 주기 위해 4년째 후원하고 있다. 탐방단에는 대전고를 졸업한 동문 11명도 함께 참여해 멘토 역할을 했다

비행기로 14시간이 걸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를 방문한 탐방단원들은 먼저 바로 옆 앨라배마주 챔버스 카운티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감사행사에 참석했다.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서 대표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16세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레이 로저(Ray Roger) 씨는 “우리를 잊지 않고 매년 이런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고 했고, 서 대표는 “참전용사 한 분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때까지 행사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쟁과 대한민국 발전상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번영과 기적’ 동영상을 보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대전중고 탐방단 학생들은 미리 연습한 미국 민요와 팝송을 불러 감사의 뜻을 전했고, 행사를 마친 뒤 일일이 참전용사의 손을 마주 잡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대전중고 미국문화탐방단은 지난 15일 미국 앨라배마주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아진USA 공장을 견학했다.

탐방단은 이어 서 대표가 경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아진USA와 우신USA 공장을 찾았다. 경산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진산업(주)과 (주)우신산업은 지난 2008년 미국 현지에 아진USA와 우신USA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가동 중이다. 매출이 꾸준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연평균 매출이 2억5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공장을 둘러본 탐방단 유건열 군은 “전체 직원 700여 명 중 한국인 직원은 100여 명 뿐이고 나머지는 현지인을 채용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허허벌판에 공장을 지어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주인공이 한국인이고, 동문 선배라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탐방단은 미국 방문 기간 중 남부지역 명문대학인 앨라배마주 오번대학교와 애틀랜타에 있는 CNN방송국, 코카콜라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이어 워싱턴 D.C.로 이동해 미국 국회 도서관, 링컨기념관, 자연사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인솔 책임을 맡은 대전고 이두영 교장은 “이번 탐방을 통해 학생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게 됐다. 앞으로 대학 진학이나 전공 선택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4년째 대전중고 미국문화탐방단을 이끌고 미국을 다녀온 대전중고 총동창회 최유일 사무처장은 “앞으로 미국문화탐방이 계속 이어져 후배들에게 넓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건청회 ‘제1회 건청옥션’

수익은 후배 동기회 발전기금으로



건청회(대전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청년부 회장단 모임)가 주관한 건청회 자선기금 마련 경매 행사인 ‘제1회 건청옥션’이 9월 22일 THE SL하우스에서 진행되었다.

정현대 총동창회장, 강효상(28회) 김상훈(31회) 의원, 강형해 신입 사무처장, 최유일 전 사무처장 등 내빈과 동문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경매품으로는 신기옥 명예회장의 소장품, 정현대 회장의 기증품, 강효상 의원과 김상훈 의원 소장품, 허성길(30회) 화백의 작품, 가야요 최상중 명장의 다기세트, 배우 김성균(48회)의 소장품, 유명래퍼 베이식(27기 이택후 동문의 자제)의 소장품, 스포츠 스타들의 사인볼 등 다양한 소장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제39회 대전가족 체육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45기, 49기, 50기 후배들의 동기회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전중에 악기 구입비 전달

대전총동창회 장학회
2천만원

대전총동창회 장학회가 대전중학교에 악기 구입 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신기옥(사진 왼쪽) 이사장은 “대전중학교 윈드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대전의 자랑스러운 자이다. 앞으로도 연주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세상에 선한 울림을 전하는 인재로 자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촌F&B(주) 조종근 사장
1천만원

조종근(사진 오른쪽) 교촌F&B(주) 총괄사장이 6월 30일 매일신문을 방문, 김대권(가운데) 대전중학교 교장에게 악기 구입 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가 ‘2017 달구벌보훈문화제’에 참가해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성금 전달 의미를 밝혔다.



www.wamc.co.kr

1978 2006 2008 2009 2016 2011

1978 - 아진산업(주) 법인설립
 2006 - 아진실업상해 설립
 2008 - 아진 USA 미국 현지법인 설립
 2009 - 대우전자부품(정읍공장) 인수
 2013 - 강소아진기차배건유한공사 설립
 2016 - 아진산업 경주구아공장 설립
 2011 - 아진카인텍 설립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최고의 제품 을 만들어 가는 기업!

101년을 생각하는
아진산업(주)입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고객의 자부심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용 컨트롤 장비, 네트워크 디바이스 장비 등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토털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① DIN 레일 이더넷 스위치
② 무선 AP/블루투스/클라우드 인터페이스
③ 랙 마운트 시리얼 장치 서버



④ 비전 전용 트롤러
⑤ 대용량 데이터 다운로드 전용 컨트롤러
⑥ RF CAL 전용 컨트롤러

지난 30년간 산업용 컴퓨터와 이를 근간으로 산업용 자동제어기기를 개발,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앞장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수적인 시스템을 비롯해 비전 검사장치, 로봇 컨트롤러 등을 출시하며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여의시스템(대표 성명기)이다. 창업자인 성명기 대표는 한 가지 기술을 안정케도에 올려놓으면 곧바로 다음 신성장동력에 착수한다는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지닌 대기업에 비해 ‘작지만 강한 기업’ 즉 강소기업이 오히려 주목 받고 있다. 이는 거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니즈를 신속히 반영한 차별화·융합화 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인한다.

산업용 자동제어 기기 분야에서 커스터마이징 강소기업으로 성장

여의시스템은 진화하는 기업, 도전하는 기업, 건강한 기업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공급하는 제품은 크게 산업용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용 컨트롤러,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 디지털사이니지용 임베디드시스템 등 3가지다.

성 대표는 “산업용 컨트롤러는 산업용 장비의 일종의 ‘두뇌’(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기기다. 예컨대 주차장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주차장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준다. 또 스마트폰 검사장비에도 적용, 스마트폰이 최상의 기능을 낼 수 있게 도와준다”며 “이러한 제품은 고객사 요청(커스터마이징)에 따라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가 모두 독특(유니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대표는 “모두 특수 목적 컴퓨터로, 일반 컴퓨터가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양이나 용도에 맞춰서 제작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기계 조립이 아닌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며 “고객 맞춤형 산업용 장비는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한 분야”라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또 성 대표는 “이노비즈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건설하고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DC-U30A
스마트폰 고속데이터 다운로드 전용 컨트롤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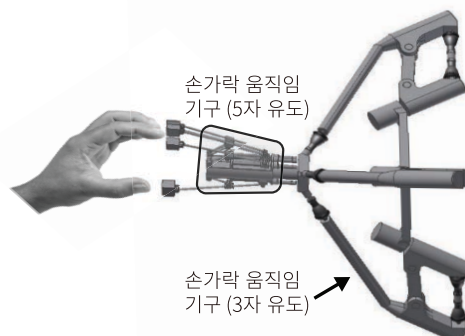


RFC-M504
스마트폰 무선 RF 측정에 최적화 된 컨트롤러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뇌졸중 환자 재활치료장비 개발

새 성장분야로 삼은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헬스케어 사업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한 대형 병원과 상용화 시험을 하고 있다.

성 대표는 “이 제품은 손, 팔 등의 움직임이 불편한 뇌졸중 환자들의 손가락, 손목 훈련을 수행하는 일종의 재활로봇이다. 단순한 재활치료가 아니라 덧셈, 뺄셈 등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통해 환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활치료를 받도록 개발했다. 조만간 상용화 과정을 거쳐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기 동문 -대건고 22회 졸업
- (전) 재경 동문회장
- (현) 8대 이노비즈(INNOBIZ) 협회장

본 기사 내용은 노벨사이언스 매거진에서 발췌

대건고 과학동아리, 한국 대표로 세계대회 참가

폐자원 활용, 3D프린트 연구

대건고 3D프린트 융합과학 동아리 3D공작소팀이 지난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가했다.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는 생물, 화학, 지구과학, 물리 등 과학 전 영역을 아우르는 중·고교생 대상 과학 관련 세계 대회 중 가장 큰 규모다. 해마다 약 50개국에서 학생 1천500여 명이 참가한다.

대건고 1, 2학년 3명(박근용, 이지강, 임주환)으로 구성된 3D공작소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 3D공작실에서 '버려진 폐자원을 활용한 정크 3D프린트'라는 주제의 연구를 했다.

대건고 3D공작소팀의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2016 YSC청소년과학탐구반 발표대회'에서 전체 분야 1개 팀에 주어지는 '대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관상)을 수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전국의 특목고, 자사고를 포함해 270개 학교 학생들이 모여 과학 탐구 실력을 겨뤘다. 3D공작소팀은 지난 1월 열린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한국대표 선발에서 영어 발표 우수성을 인정 받아 국가대표로 최종 확정됐다.



대건고 호연지기 캠프

2017년 대건고 호연지기 캠프가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안동 일원에서 열렸다.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넓은 자연에서 큰 마음을 배우고자 시작된 호연지기 캠프에는 1, 2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가했다.



대건중 리더십 캠프

대건중 학생 리더십 캠프가 대구청소년수련원에서 4월 7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됐다.



대건인의 자랑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

제15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중등부 2위 우수상

대구 대건중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중등부 2위 우수상을 받았다.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는 지난 6월 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채보상기념공원

에서 열린 '2017 달구벌보훈문화제'에서도 공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뽐냈다. 특히 연주곡들을 모두 외워서 연주하는 등 뛰어난 기량에 호평이 쏟아졌다.

5TH DAEGUN SUPERNA WIND ORCHESTRA CONCERT

제5회 대건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2017. 10. 27(금) 오후 7:00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주최 대건중학교 후원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지휘 이동인

www.dreamh.co.kr

진료안내 | 심장센터,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실, 가정의학과, 건강증진센터, 내시경센터, 산부인과

드림병원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4번 출구 바로 앞

보건복지부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

대표전화 053) 640-8800
응급실 053) 640-8575
원장 : 이한일, 이태순, 진명인(대건41기)

배 아파도, 가슴 아파도
드림병원
심장센터 진료 중

대학병원급 장비 및 우수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진

대한민국대표 소화기질환병원 식도에서 위·장 항문까지, 내시경 진단에서 암 수술까지

DAEGUN
71th
Anniversary



개교 기주년 기념
제39회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10월 15일
대건고 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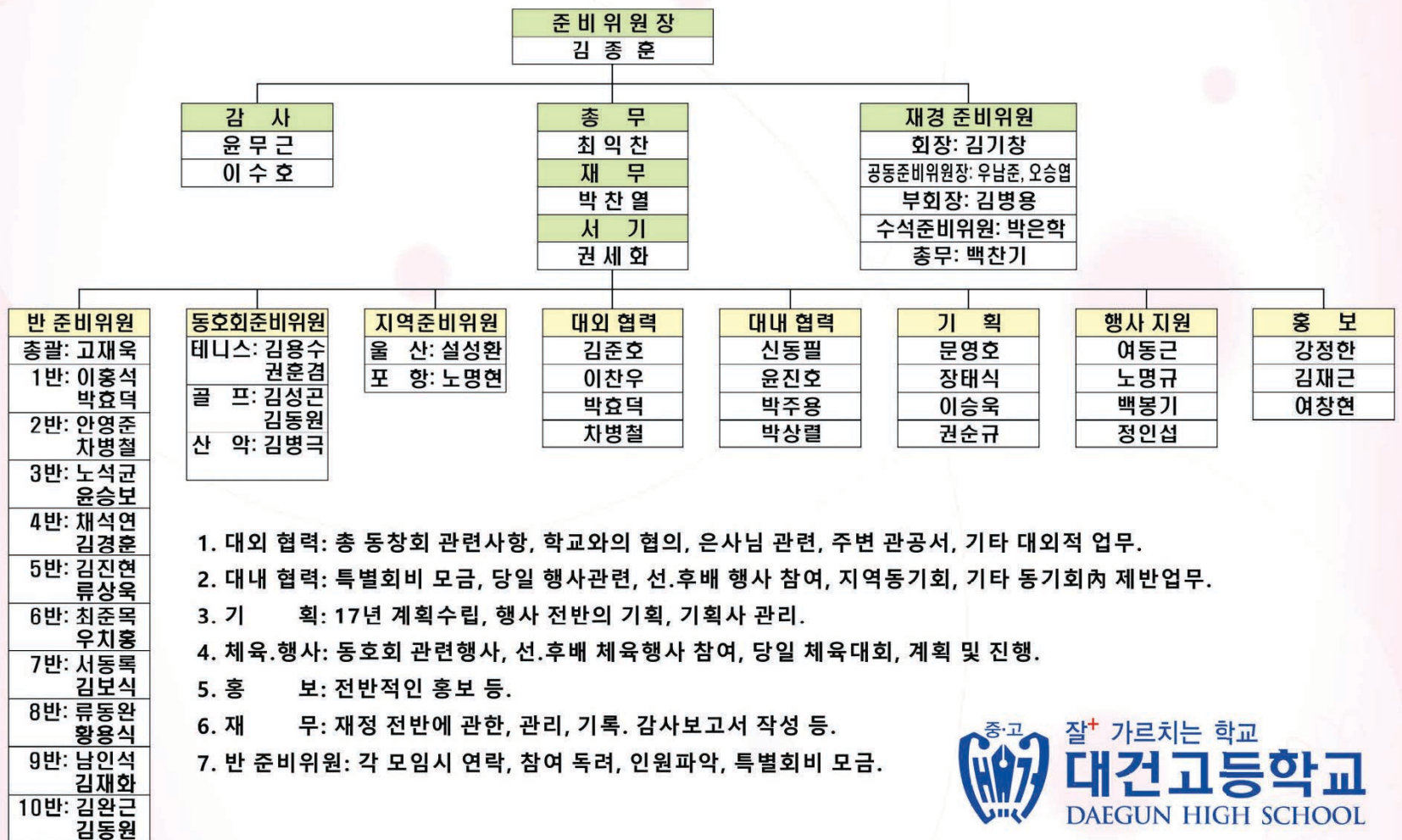
대건가족체육대회

All Together

뛰고 달리고 Go 함께하고

함께 한 71년, 다가 올 100년, 하나 된 대건인

2017년 대건고 35기 체육대회 준비위 조직도 및 업무분담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http://www.daegungo.net>